시 론

벌써 허리띠 푸나

근심으로 이룬 세상 걱정으로 살아간다. 사실 그렇다.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다. 부처님도 집이 있으면 집을 걱정(有宅憂宅)하고 밭이 있으면 밭을 걱정(有田憂田)한다고 말씀하셨다.

IMF체제 백일 지났건만 흥청망청 옛버릇 '고개'

지금 우리에게는 IMF가 화두다. 죽을 각오로 일하지 않으면 그 한파가 빚은 동사(凍死)는 사필귀정이다. 외채가 2천억 달러, 달러당 1500원으로 계산하면 3백조원으로 국가 4년 예산과 맞먹는다. 이를 갚아야 우리는 IMF체제를 벗어나게 된다. 이를 이겨내려면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산더미빚의 수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구국의 마음으로 장농속 금반지마저 아낌없이 헌납했음이 아닌가.

장 백 일
〈국민대 교수 · 문학평론가〉

IMF체제가 겨우 1백일을 넘겼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그런데 요즘 흥청망청 살던 옛버릇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하루 실업자가 1만명씩 늘고, 직장잃은 가장들이 산과 거리를 방황하고 서울역은 구직 노숙자들로 그 처량함이 눈물겹다. 실직자 가족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침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거품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IMF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이 망국적 작태들도 가지가지다.

한산했던 거리가 다시 자동차물결로 넘쳐난다. 대형할인매장을 찾던 주부들의 발길이 백화점으로 몰린다. 가격을 40%나 올린 프랑스화장품 샤넬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고 한다. 또 강남의 나이트클럽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한병에 50~60만원하는 위스키 발렌타인 21년산과 접시당 10만원하는 튀김안주도 꼬리를 물고 팔린다고 하니 진정 IMF가 끝났다고 생각해서인가. 우리 국민들의 망각이 이다지도 빠르단 말인가.

지난 주말 고속도로로 서울을 빠져나간 차량만도 19만여대. 한달전보다 2만여대가 늘었으며 전국 고속도로는 늘어난 행락차량으로 체증을 빚었고 IMF전인 지난해 11월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한다. 공무원골프해금조치가 나오기 무섭게 골프장들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떨어졌던 골프장 회원권 값이 다시 오른다고 하니 국난극복의지가 어디로 실종됐단 말인가.

사실 IMF는 이제부터다. 1년반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는 우리에겐 뜨거운 감자다. 낙제점수인 F학점의 우리 경제를 A학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보통 쉬운 문제인가. 지금 우리는 와신상담으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우리 경제를 재생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건전소비는 적극 권장하면서 과소비 풍조는 자제하고 외화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의 자성과 안정이 필요하다. 정치혼란은 곧 사회불안을 심는 씨앗이다. 자기 당의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구시대적인 구태의연함만을 보이고 민초들만 고통나눔에 앞장서라고 한다면 누가 수긍하고 선뜻 나서려 하겠는가. 정치가 잘못되면 '政'은 '民'을 치는 '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에게 '與民同苦'와 '與民同樂'을 타이르고 있는 맹자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일부의 해이해진 작태에 정치권이 먼저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득권자들부터 자성 건전소비 생활화해야

우리는 역사적으로 IMF보다도 더 큰 시련을 이겨낸 저력의 민족이다. 흐뜨러진 정신을 다시 추스리고 허리띠를 새롭게 졸라매자. 지난해 연말 IMF가 시작되었을 때 6·25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이 IMF체제를 어서빨리 이겨내고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던 그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눈물에 젖은 빵을 씹어본 사람만이 빵의 고마움을 안다고 했다. 아직은 눈물로 빵을 먹어야 하는 때이다.

열린마당

IMF시대 봉축행사

혼들리고 있는 경제, 그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한가지가 있다면 바로 부처님 오신뜻을 온누리에 전하고자 하는 봉축의 마음일 것이다. 올 봉축행사는 예년에 비해 겉치레를 자제하고 실속을 다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교계 각 단체와 사찰의 IMF시대 봉축행사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올해 봉축행사는 소외된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자비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제등행렬대신 자비탁발

직지사 관할사암 김천 구미 상주 예천 문경 등 제8교구 관할하의 5개지역 사암연합회 회장단은 11일 직지사(회주 녹원)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해마다 실시해 온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김천사암연합회를 필두로 각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 자비의 탁발을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도출은 종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IMF시대에 부응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자비의 탁발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 사암연합회 연석회의는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축제보다는 자비행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때가 때인만큼 보여주기 행사보다는 불교본연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복지시설 · 군부대등 위문

부산 삼광사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날을 계획중이다. 부처님 오신날 맞이 불우이웃돕기와 천마재활원, 정화양로원 방문등이 바로 그것. 성금 전달은 물론 직접 방문해 그들의 외로움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실시한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어 꾸준히 후원을 해 온 53사단,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도 부처님 오신 참뜻을 전할 예정이다. 요즘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함께 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것이 삼광사의 설명이다. 매년 실시하던 행사지만 어려운 시기를 맞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판단, 비중있게 치를 예정이다.

봉축탑 · 대형현수막 축소

제주불교연합 제주불교연합회봉축위원회(위원장 중원)는 IMF시대를 감안 봉축탑 및 대형현수막 등 장엄물은 가급적 축소키로 의견을 모아 경제난국을 타파하는데 불교계가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각 신행단체별로 일정한 장소에서 봉축행사를 실시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이벤트형식의 축제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오는 4월 25, 26일 양일간으로 예정된 봉축이벤트행사는 해변공연장등 공개장소에서 탑돌이, 제주불교대합창제,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로 꾸밀 예정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바자회와 사찰전통음식 및 전통차시음장, 향토음식점 등 풍물장터도 연다. 불자가 훈써주기, 염주달아주기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우이웃돕기 연등달기

맑고향기롭게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는 매년 '남을 위해 다는 연등하나' 행사를 통해 모아진 성금을 파주 대비양로원 등에 전달해 왔다. 올해는 이 행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길상사에 새로 보금자리를 꾸몄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진행중이어서 사회상황을 반영해 등명칭도 '세상의 모든 아픈이들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삶이 괴로운 노인들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기들을 위하여, 육신의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일터를 떠나야만 한 이들을 위하여,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사는 당신을 위하여'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 등달기로 모아진 성금은 IMF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을 위해 쓰게된다.

지난해 사용 연등 재활용

우리는선우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축복의 등, 감사의 등, 용서의 등, 인연의 등, 통일의 등, 자비의 등' 달기 행사를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사에 사용되는 등은 지난 해에 달았던 등을 재활용의 차원에서 사용한다. IMF로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등값은 여전히 한등당 1만원을 유지해 많은 불자들이 부담없이 등밝히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등달기로 모아진 성금은 장충단공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한마당잔치 비용으로 쓸 열 예정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하나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비실천사업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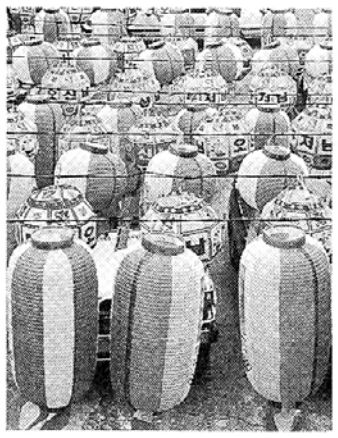
대불련 대불련(회장 박성철)은 '부처님 자비로 이웃과 함께'라는 올해 봉축 정신을 실천하고자 IMF 경제한파로 더욱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나선다. 대불련 소속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노력봉사활동을 전개, 봉축기간중 불교계 사회봉사단체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불련은 '자비실천 사업단'을 설립했다. 사업단은 생명나눔실천회와 나눔의 집 등 불교계 봉사단체와 연계해 대학생들이 헌혈하고 정신대할머니를 위로하는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각 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봉축기간(4.1~5.5) 중 결식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보육원 등의 활동에 1일 노력봉사자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전통燈을 답시다"

조계종봉축위 왜색등 퇴치 적극나서
전통마당극등 IMF형 봉축준비도



◇아래 위에 테두리를 씌운 일본등.

국가경제 위기로 사회분위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봉축위원회도 IMF형 알뜰봉축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4월1일~5월5일까지를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간으로 정해 민족문화의 토대로써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왜색등 추방운동은 바로 한국불교정체성 되찾기다.〈본지 97년 5월21일자 참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봉축등이 일본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봉축기획단이 일본, 대만, 중국 등을 답사하고 각국 등을 비교해 삼국시대에 사용된 접등(지등)의 형태를 복원했다. 기존의 등과 봉축기획단이 재현한 전통 만월등의 차이는 봉축 등의 아래 위테두리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 봉축위는 불자들이 직접 제작한 전통 등의 사용을 널리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등이 갖는 밝음·소원·지혜의 의미를 통해 위축돼있는 우리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정을 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관광인구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영어와 일어로 된 홍보팜플렛도 제작했다. 한국광광공사의 각 지사를 통해 세계 20여개국에 이미 배포했으며, 국내 관광업체와 연결해 외국인 관광단까지 모집하고 있다. 봉축위는 이들 외국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봉축행사의 하나로 민속장터, 전통마당극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는 국민적 일체감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불교문화를 대중화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은자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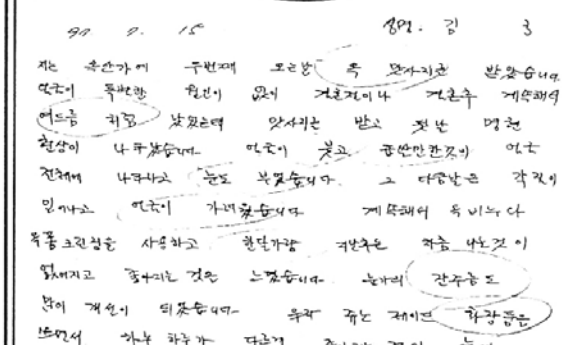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얼굴미용



백옥옥 옥옥옥
팔반팔 벨네이
염지찌 트외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合掌 777-0105(우편판매가)

사 · 과 · 문

귀의 삼보 하옵고,
종단 종정스님 및 불자여러분의 건강과 안과태평을 기원 드립니다.

소승이 지난 1997년 본지에 공고한 내용중 1992년 10월 14일자로 이혜봉(대산)스님의 종정 불신임안 가결은 1993년 12월 10일자 였으므로 바로 잡으면서 아울러 속된 속어로 공고한 사실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1998년 3월 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학암(재규) 합장